음주운전·성범죄…끊이지않는 경찰 비위

음주운전 28명·금품수수 6명 등 광주·전남경찰 5년간 85명
성범죄 수사 대상 6명 중 4명이 여성청소년 부서 근무 '충격'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85명이 금품수수·성범죄·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주체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피소되는가 하면, 성범죄 수사 담당 경찰이 성범죄 가해자로 적발되는 등 실망스러운 경찰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경찰관 피소·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광주·전남에서 수사 대상이 된 경찰관은 85명(광주 35명·전남 5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사망사고 포함) 19명, 성범죄·아동청소년법 위반 7명, 금품수수 6명, 사기 4명 등이었다.

특히 전남경찰의 경우 강간·성매매·불법촬영·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 대상이 된 경찰 6명 중 4명이 '여성청소년' 부서 소속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 당시 여성·청소년 관련 기획업무와 대(對)여성범죄 지도·단속 등 여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음주운전도 빠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간 데다, 광주지방경찰청장까지 나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을 강조한 뒤에도 광주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은 지난 4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고 서부경찰 소속 경감이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음주 경찰관의 경우 28명 가운데 4명만이 중징계에 속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4명, '강등'은 8명으로 집계됐다.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찰의 경우 '초급간부'인 경위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장(13명,) 경사(10명), 경감(9명), 순경(5명), 경정(3명) 순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비위 내용만 봐도 경찰조직이 국민의 신뢰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시민들에게 국가의 첫 번째 공권력으로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집콕에 이동 줄어든 추석 사건·사고도 크게 줄었다

범죄 20%·교통사고 30% 감소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를 비롯해 각종 사건·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 기간 매년 증가세이던 명절 연휴 가정폭력은 크게 감소했고 주요 범죄는 20%, 교통사고는 30% 가량 지난해 추석에 비해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귀성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고향을 찾는 지역민들이 줄어들었고, 감염위험에 따른 '집콕' 분위기까지 겹쳤던게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올해 추석연휴기간(지난달 30일~지난 3일) 112 출동신고는 총 3251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4일간(3621건)과 비교하면 11.6% 감소했다. 하루 평균 출동한 건수도 지난해 920건에 비해 올해는 813건으로 줄고, 살인·강도·날치기·절도·성폭력·납치감금·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 등 9종의 중요 범죄 신고도 20.5% 줄었다.

특히 긴급신고인 코드0과 코드1는 17.3% (972건→804건)감소했고,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도 지난해 69건에서 올해는 44건으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연휴기간 발생한 교통 사고도 감소세를 보였다.

광주·전남에서 이번 추석연휴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27건(광주40건·전남87건)으로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190건, 광주 67건·전남 123건)보다 33.1%나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광주에서는 추석연휴 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없었지만 올해는 지난 2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말바우사거리에서 무등도서관 방면 왕복 7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40대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에서 추석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1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올해 연휴기간 광주지역에서 실시된 음주단속(48회)에서는 지난해 추석(4일간)보다 12건이 증가해 총 48명(면허취소 33건, 정지11건, 측정거부4건)이 적발돼 아쉬움을 남겼다.

언택트 추석의 영향으로 가족끼리 많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 가정폭력도 지난해 하루 평균 21.8건에서 17.5건으로 줄었다. 연휴 첫날인 지난 30일 오전 8시 40분께 순천시에서는 평소 갈등이 깊던 아내와 말다툼 도중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B(77)씨가 범행직후 스스로 자해를 한 사건도 발생했다. 부부 모두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해와는 달리 코로나19와 관련된 출동이 총 36건(집합 제한 19건, 마스크 시비 13건 등) 발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 전두환 변론 종료 검찰 구형량 관심 집중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 재판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찰의 구형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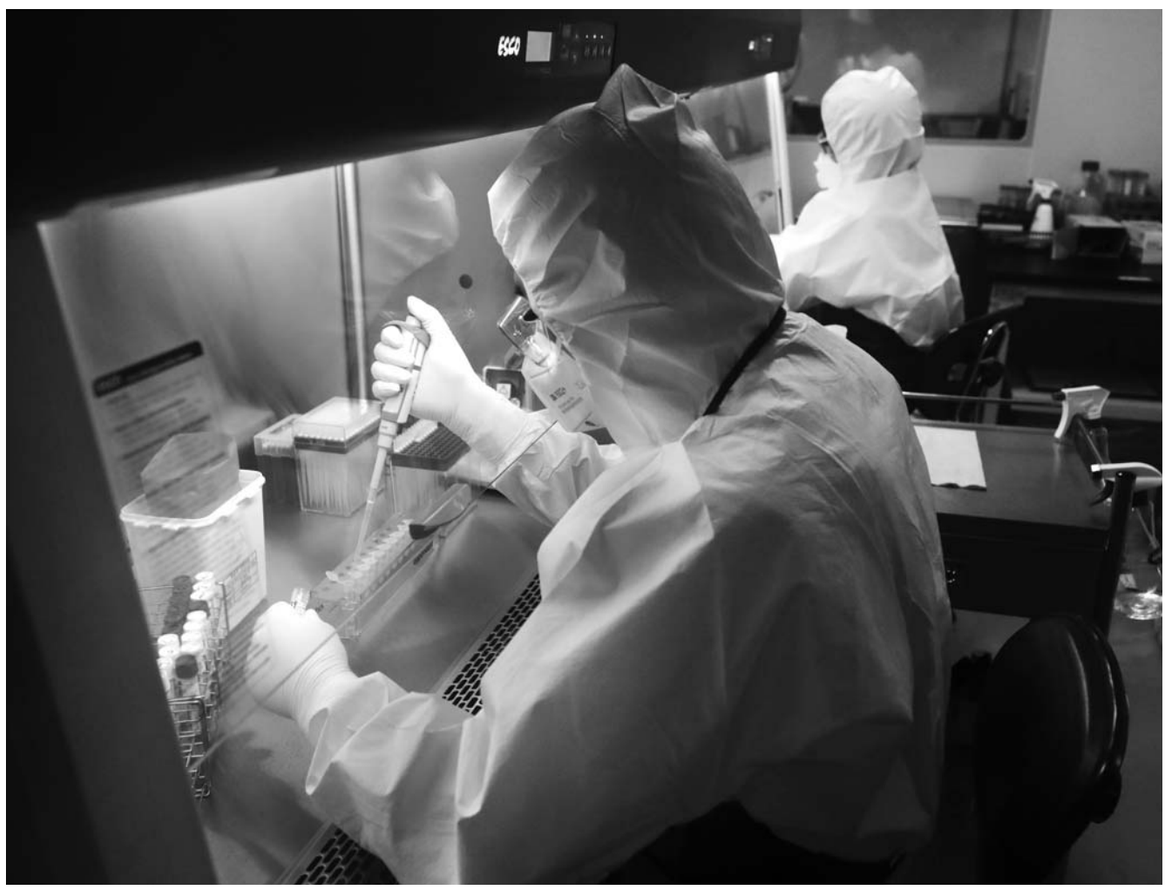
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두차례 불출석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을 진행한다.

검찰이 전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추석연휴 반납 코로나 검체 분석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밀폐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코로나19 검체 분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무면허 청소년 카셰어링 사고

타인 아이디 이용 차 몰다 화순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

10대 청소년들이 타인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카셰어링 부정 이용 문제가 또다시 드러나면서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화순경찰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 카셰어링 업체에서 빌린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치사)로 화순지역 모 고교 2학년생 A(17)군을 구속했다.

A군은 지난 1일 밤 11시 40분께 화순군 화순읍 남산공원 입구에서 카셰어링업체에서 빌린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B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에서 고향인 화순을 찾아 부모님과 식사 뒤 산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군 등은 사고를 낸 뒤 광주로 달아났다가 새벽 1시 넘어서 택시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A군은 무면허인데도 SNS를 통해 다른 사람 아이디를 빌린 뒤 카셰어링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타고 친구들 4명과 돌아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초 사용자 등록할 때만 운전면허증 인증을 할 뿐 다음번 이용 때부터는 아이디만 있으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악용해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아이디를 빌리고 빌려주고 이용하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A군도 C씨에게 현금 3만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빌려 탄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특히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은 애초 아이디를 빌려준 사람이 지는 반면, 사망·중상 같은 형사적 책임의 경우 아이디를 빌려준 사람이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면허 운전자의 차가 돌아다니게 하는 아이디 대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타인의 아이디나 면허증을 이용한 카셰어링 사고가 최근 1년 간 10여건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관련 문제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순경찰은 A군과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인 고교생 4명에 대해서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아이디를 빌려준 C씨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전남 공공의료원 의사·간호인력 태부족 광주지역 의대 출신 70%가 타지역 근무

전남지역 공공의료원의 의료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의대 출신 중 70%가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와 우수한 의사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비례) 의원이 지난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남지역 공공의료원 3곳에 필요한 의사는 51명이지만 현재 36명으로 15명이 부족하다. 간호인력은 정원 302명 중 현재 284명으로 18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의료원은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35개 공공의료원 중에서는 의사정원 총 1302명 중 현원은 1228명으로 74명이 부족하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 중 전남지역 공공의료원 의사 부족이 15명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14명, 강원 11명, 대구·경북 8명 순이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의과대학 졸업자 중 10명 중 7명은 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 제출받은 '1974~2020년 의대 졸업자 근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의과대학 2곳(정원 250명)에서 총 1만1630명이 배출됐다. 이중 졸업이후 지역에 남은 의사는 3480명으로 29.9%이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와 비교해도 광주지역 의대졸업생이 모교 등에 남는 비율은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대학에서 1만 3021명이 배출된 부산은 5871명(45.1%)이 지역을 떠나지 않았으며, 대구는 1만 2363명 중 5526(44.7%)이 남아 의료활동을 하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진료조차 제대로 받기 힘든 공공의료원이 전국에 절반이 넘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 등이 절실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정책들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53729	1	여수시 대학로46, 106동 2층 202호 [미평동,선경아파트] 133.53㎡	아파트	254,000,000 254,000,000	2020타경55015[중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0타경 3557	1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332 225㎡ 구례군 문척면 서당길 43 30.4㎡ 부속건물 18.8㎡ 제시외 가축 등 13.5㎡	대 단독주택	24,814,800 24,814,8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3434	1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 868 1051㎡[분묘소재로인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18,918,000 18,91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875 372㎡[제시외건물소재로인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27,407,800 27,407,800	일괄매각.목록3,4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875-1 716㎡	전		
		동소 877-6 62㎡	전		
	3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산254-1 10215㎡[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임야	91,335,200 91,335,200	일괄매각
		동소 산254-3 164㎡	임야		
	4	동소 산254-6 2749㎡[공유자이민지분2544/2749전부.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임야	22,387,200 22,387,200	지분매각
	5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산457 19708㎡[공유자이민지분1/2전부]	임야	42,372,200 42,372,2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6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141-3 59㎡	도로	43,902,000 43,902,000	일괄매각
		동소 142-1 2320㎡[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동소 142-21 281㎡	도로		
	7	동소 142-22 1996㎡[꽁유자이민122/1996지분전부.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전	2,196,000 2,196,000	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3618	1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234-1 21185㎡[분묘소재로인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임야	148,295,000 148,295,000	지적경계불명확,경계측량요
2020타경 3748	1	고흥군 고흥읍 성촌리 438-1 1000㎡[일부지상컨테이너창고소재[매각제외]] 제시외수목 소나무등 1식	전	89,530,000 89,530,000	제시외수목포함,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3816	1	여수시 상암동 1067 1620㎡[수목[배나무등][매각포함]	전	90,000,000 90,0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53644	1	고흥군 남양면 중산리 250-1 766㎡[분묘소재로인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9,958,000 9,95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53781	1	여수시 소호동 13 500㎡[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토지만매각]]	대	215,500,000 215,500,000	
	2	여수시 소호동 산9-8 496㎡[분묘소재로인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임야	5,456,000 5,456,000	
2020타경 54265	1	광양시 옥곡면 수평리 69 1568㎡ 제시외수목 매화나무 등 1식	답	123,386,000 123,38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매각포함
2020타경 54388	1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374 1078㎡[[공유자안은섭지분1/4.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소재로인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7,276,500 7,276,5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2	동소 443-1 202㎡[공유자안은섭지분1/4.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대	1,515,000 1,515,000	물건번호1과비고동일
[기타]					
2020타경 3137	1	선적항:고흥군 동일면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대성2호 어선번호:1311003-6488409 선질:FRP 총 톤수:1.94톤 기관의종류와수:가솔린선외기 기관 1대 추진기의종류와수: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진수년월일:2013.11.5.	선박	31,001,900 31,001,900	선박보관장소:여수시국동국동항[㈜와이제이마린].검사증서유효기간:2018.11.11~2023.11.10
2020타경 3687	1	여수시 서교동 660-1 32㎡[공유자김석봉지분1/2전부]	도로	143,828,000 143,828,00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동소 660-3 296㎡[공유자김석봉지분1/2전부]	도로		
2020타경 4130	1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284-7 9805㎡	유지	362,785,000 362,785,000	유지,일반공업지역
	2	동소 1284-8 9791㎡	유지	362,267,000 362,267,000	유지,일반공업지역
	3	동소 1284-9 9686㎡	유지	358,382,000 358,382,000	유지,일반공업지역
	4	동소 1284-10 9687㎡	유지	358,419,000 358,419,000	유지,일반공업지역
	5	동소 1316-1 9285㎡	유지	343,545,000 343,545,000	유지,일반공업지역
	6	동소 1316-7 9956㎡	유지	368,372,000 368,372,000	유지,일반공업지역
	7	동소 1316-8 9595㎡	유지	355,015,000 355,015,000	유지,일반공업지역
	8	동소 1346-1 7380㎡	유지	273,060,000 273,060,000	유지,일반공업지역
	9	동소 1346-12 9203㎡	유지	380,193,000 380,193,000	일괄매각.유지,일반공업지역
		동소 1346-31 70㎡	유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20. 10. 19.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0. 10. 26.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증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송기철